



# 멘탈 코치조차 없더니... 선수들 멘붕 어찌할꼬

역대급 스타프 불구 '멘탈 코치' 배제 스웨덴-멕시코는 심리 전문가가 조언 코치·고참들, 후배들 위로 절실할 때

'올인(All-In)', 특정 사안에 모든 걸 걸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2018러시아월드컵 여정에 나선 축구국가대표팀에게 18일(한국시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1차전이 그랬다.

대표팀은 스웨덴전에 운명을 걸었다. 지난달 21일 이후 국내 훈련과 오스트리아 레오강 사전캠프, 그리고 러시아 입성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차린 베이스캠프에서도 모든 초점은 스웨덴이었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한 전술훈련의 주 내용도 '스웨덴 대응·공략'에 맞춰졌다. 외신에서 깊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뜨거웠던 '스파

이 논란' 역시 여기에 기인했다. 최대한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기려는 정성을 들인 것도 첫 단추에 조별리그 통과와 상당 부분이 걸려있다고 판단해서다.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190cm 장신들이 즐비한 스웨덴 수비진에 맞서기 위해 김신욱(30·전북 현대)을 투입했고, 적어도 첫 번째 공중 볼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의 허를 찔렀다. 그러나 전반 15분까지였다. 역습빈도, 결정적인 크로스도 적었다. 지나치게 상대 신장을 의식했고, 공들여 마련한 세트피스 루트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유효 슈트 0개의 골욕은 어찌던 당연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졌고, 스웨덴이 이겼다. 멕시코가 독일을 잡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16강 진출의 시나리오가 더욱 꼬여버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심리적인 박탈감, 모든 걸 놓쳐버렸다는 허탈

함을 극복해야 한다. 신태용(48) 감독을 비롯한 모든 대표팀 구성원이 "스웨덴은 무조건 잡고 나가야 토너먼트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배가 됐다.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을 위해 역대급 코칭스태프를 구성했다. 경험이 풍부한 스페인 출신 지도자들을 대거 끌어들이었다. 우리를 위한 전술부터 피지컬, 상대국 분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심리 전문가. 과거 여자대표팀이 멘탈 코치의 도움을 받았고, 역대 올림픽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냈던 양궁대표팀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전문가의 힘을 빌렸다.

스웨덴 코칭스태프에는 우리와 달리 멘탈 코치가 있다. 안 안테르손 감독은 "코치가 아닌, 조언자(카운슬러) 역할"이라고 설명했으나 바이킹 군단은 월드컵 경험 부족

에서 찾아온 중압감과 압박을 진절할 상단을 통해 상당부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또다른 경쟁국인 멕시코도 멘탈 코치가 따로 있다. 스웨덴의 한 기자는 한국전에 앞서 "우리는 최근 평가전에서 골도 넣지 못하고, 이 기지도 못해 스트레스가 상당했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라는 변수도 터져 선수단 공기가 무거웠지만 멘탈 코치가 잘 다독여줬다"고 귀띔했다. 치유의 힘이다.

우리는 이제 와서 갑자기 멘탈코치를 영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베이스캠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간 대표팀의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멕시코(24일·로스토프나도노)~독일전(27일·카잔)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모든 것 이전에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를 스스로 털어내야 한다. 코칭스태프, 그리고 선수단 내 고참들의 또다른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 yoshike3@donga.com

한눈에 보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19일 21시 현재 (한국시간)		
일정	조	경기
15일 (금)	A	러시아-사우디 0-0
	A	이집트-우루과이 1-1
16일 (토)	B	모로코-이란 1-0
	B	포르투갈-스페인 3-3
	C	프랑스-호주 2-1
	D	아르헨티나-아이슬란드 1-1
17일 (일)	C	페루-덴마크 0-1
	D	크로아티아-나이지리아 2-0
	E	코스타리카-세르비아 1-1
18일 (월)	F	독일-멕시코 1-1
	E	브라질-스위스 1-1
	F	스웨덴-한국 0-0
19일 (화)	G	벨기에-파나마 3-0
	G	튀니지-잉글랜드 2-2
	H	콜롬비아-일본 2-1
20일 (수)	H	폴란드-세네갈 0-0
	A	러시아-이집트 0-0
On Air	B	포르투갈-모로코 2-1
21일 (목)	A	우루과이-사우디 0-0
	B	이란-스페인 0-0
	C	덴마크-호주 2-1
22일 (금)	C	프랑스-페루 0-0
	D	아르헨티나-크로아티아 0-0
	E	브라질-코스타리카 1-1
23일 (토)	D	나이지리아-아이슬란드 0-0
	E	세르비아-스위스 0-0
	G	벨기에-튀니지 2-1
24일 (일)	F	한국-멕시코 0-0
	F	독일-스위스 0-0
	G	잉글랜드-파나마 2-1
25일 (월)	H	일본-세네갈 0-0
	H	폴란드-콜롬비아 0-0
	A	우루과이-러시아 0-0
26일 (화)	A	사우디-이집트 0-0
	B	스페인-모로코 0-0
	B	이란-포르투갈 0-0
27일 (수)	C	호주-페루 0-0
	C	덴마크-프랑스 0-0
	D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 0-0
28일 (목)	D	아이슬란드-크로아티아 0-0
	F	한국-독일 0-0
	F	멕시코-스웨덴 0-0
29일 (금)	E	세르비아-브라질 0-0
	E	스위스-코스타리카 0-0
	H	일본-폴란드 0-0
30일 (토)	H	세네갈-콜롬비아 0-0
	G	파나마-튀니지 0-0
	G	잉글랜드-벨기에 0-0



한국축구대표팀은 18일(한국시간) 펼쳐진 스웨덴과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모든 것을 걸었지만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 한국은 실패에 따른 심리적인 박탈감, 허탈함을 극복하고 멕시코전을 준비해야 한다. 니즈니노브고로드(러시아) | AP뉴시스

## 박주호마저... 무너진 왼쪽수비, 대체자원이 없네

햄스트링 부상 박주호, 사실상 아웃 김민우 심적부담·홍철 부상으로 난조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지독한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 2018러시아월드컵 최종 엔트리(23명)를 발표하기 전부터 주력들의 줄 부상에 신음한 대표팀은 본격적인 대회 여정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왼쪽 측면이 말썽이다. 풀백 김진수(26·전북 현대)가 끝내 회복에 실패해 최종 엔트리 승선에 실패하더니 박주호(31·울산 현대)마저 18일(한국시간)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장현수(27·FC도쿄)가 찬 롱패스를 잡으려 무리하게 공중으로 뛰어오르다 오른쪽 허벅지를 크게 다쳤다.

4년 전 브라질월드컵 최종엔트리에 발탁됐으나 출전 기회는 부여받지 못한 박주호는 멕시코~독일로 이어지는 나머지 조별리

그 출장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공고롭게도 박주호를 대신해 투입된 김민우(28·상주)가 스웨덴전에서 페널티킥(PK) 결승골의 빌미가 된 태클 실패를 빚어 충격은 훨씬 컸다.

스웨덴전 이후 곧바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제정한 전세기로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한 대표팀은 24일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린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다시금 새 판을 짜야 할 입장이다.

박주호의 출격이 어렵고, 김민우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대표팀에서 활용 가능한 왼쪽 풀백으로는 홍철(28·상주)이 유일한데, 그 역시 오스트리아 사전훈련캠프에서 가벼운 부상으로 100% 컨디션이 아니다. 훈련은 정상적으로 참여하나 최적의 몸놀림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송해설자로 스웨덴전 현장을 찾은 박지성(38·은퇴)은 "멕시코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이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무조건 공격만 할 수 없다. 대량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수비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 남장현 기자

## 냄비 누리꾼들 '저주 폭탄'... 이걸 아니죠

태극전사들이 '바이킹 군단' 스웨덴을 상대로 사력을 다했으나 아쉽게 0-1로 졌습니다. VAR(비디오판독 시스템)의 매서운 눈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한 판에 모든 걸 걸었고, 모든 힘을 쏟아냈기에 안타까움은 대단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대부분이 그라운드에서 털썩 주저앉거나 누워버렸습니다. 한참 일어서지 못하다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활기로 가득한 스웨덴 선수들과 취재진을 뒤로한 채 미스트존(공동 취재구역)을 빠져 나가는 몇몇 선수들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어렵게 입을 떼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충격과 상처는 컸습니다.

혹시 이들이 기말 곳은 있을까. 파스하게 품어주는 이들은 없을까. 하지만 '혹시나'하는 바람이 '역시나'로 바뀌는 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명을 기반으로 한 각종 국내 축구계사판에서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마녀사냥'이 이뤄지

고 있었습니다. 온갖 저주의 화살은 주로 중앙수비수 장현수(27·FC도쿄)와 신태용(48) 감독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 아픈 건 선수 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취재진의 상당수가 지난달 21일 국내 소집 이후 대표팀과 줄곧 함께 하고 있기에 화도 많이 났고 가슴도 타질 듯 아려왔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씩씩히 경기장 구석에서 담배 한 대로 시름을 달래려던 대표팀 스태프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제 세 경기 중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더욱이 16강 진출이 완전히 좌절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실수로 PK를 내준 뒤 고개를 떨근 김민우(28·상주)의 어깨를 '킥틴'

기성용(29·스완지시티)이 감싸며 위로하고, 4년 전 브라질에서 주먹으로 땅을 치며 눈물을 쏟은 '올보' 손흥민(26·토트넘)이 이번에는 김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 모션을 취할 때 작은 희망을 봤습니다.

물론 따끔한 질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베이스캠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깨 펴고, 가슴 열고 당당히 남은 여정에 임하자고. 그대들은 아직 젊고, 틀림없이 일어설 수 있다고.

남장현 기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 '도브로에 우뜨라'는 러시아의 아침 인사 말입니다.